

상행대동맥의 외과적치료 : 조기성적

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

백완기, 김혁, 서필원, 유재현, 이원용, 이영탁, 박표원, 안혁, 박영관,
홍승록, 이영균

저자들은 1985년 2월 부터 1993년 2월까지 상행대동맥 질환을 가진 17례의 환자에서 총 18건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은 동맥류가 12례, 대동맥박리증이 6례였으며 수술시 연령분포는 26세에서 69세 사이로 평균 44.3 ± 11.0 세였다. 11례의 환자에서 복합도관(composite graft)을 이용한 대동맥 판막 및 상행 대동맥의 대체와 관상동맥 재접합술(coronary reimplantation)을 시행하였고, 그외 상행대동맥만을 도관을 이용하여 대체한 경우가 5례, 대동맥판막 대체술 및 관상동맥상부대동맥 대체술(supracoronary graft replacement)을 같이 시행한 경우가 1례, 상행대동맥-복부대동맥 우회로 조성술 및 하행대동맥의 혈전제외술(thromboexclusion)을 시행한 경우가 1례였다.

관상동맥의 재접합은 6례에서 Bentall 술식을 5례에서는 중간도관(intramediate graft)을 사용하는 Cabrol 술식을 사용하였다. 2례의 환자에서 전대동맥궁 대체술(total arch replacement) 및 대동맥궁분지 재건술(arch vessel reconstruction)을 함께 시행하였다. 저체온 순환정지(hypothermic circulatory arrest)가 필요하였던 경우는 6례였으며, 최근들어 온혈 심장수술(warm heart surgery)을 4례의 환자에서 시도하였다.

전례에서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술후 주요합병증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술후 추적은 15례의 환자에서 가능하였다. 추적기간은 1개월에서 72개월 사이였으며, 대동맥 박리증으로 Bentall 술식 시행 5년후 원위부 대동맥의 박리전파로 재수술이 필요하였던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한 술후 경과를 보였다.